

全羅日報

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007
면 지역

'꿀벌 사라짐 현상' 원인 지목 군산, 해충 꿀벌응에 집중 방제

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양봉 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'꿀벌 사라짐 현상'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충인 꿀벌응에 집중 방제에 나선다.

27일 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꿀벌의 응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월동 전 응에 집중방제를 실시해 응에 피해 없이 꿀벌 월동 나기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.

꿀벌응에는 꿀벌에 기생해 체액을 빨아먹는 해충으로, 꿀벌의 수명과 산란력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등 '꿀벌 사라짐 현상'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.

시는 이런 꿀벌응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은 월동 전 꿀벌 응에 방제를 실시하여 꿀벌의 개체 수를 월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.

특히 꿀벌 사육농가 중 방제 수준이 우수한 농가가 고령화 농가와 응에 방제 방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응에방제를 지원한다.

방제 지원은 산란을 마친 봉군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 초까지 내성이 없는 약제를 이용 월동 전까지 농가별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. 농가 스스로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방제 방법 교육도 병행한다.

군산=이재봉기자